

조선후기 동래부의 『萊府重記』에 수록된 기록물 분석

Analysis of records in Dongnaebu's *Raebujunggi*

남 권 희 (Nam, Kwon-Hee)*

진 유 라 (Jin, Yu-Ra)**

강 유 현 (Kang, Yu-Hyeo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기록물 관련 항목 분석 |
| 2. 동래부의 역사와 지리적 배경 | 4.1 부서별 기록물 현황 |
| 2.1 역사와 지리 | 4.2 戶口帳籍 |
| 2.2 동래부의 주요 시설 | 4.3 紙筒 |
| 3. 『萊府重記』의 書誌 | 5. 맺음말 |
| 3.1 『萊府重記』의 형태 | <참고문헌> |
| 3.2 구성 및 체재 | |
| 3.3 『萊府重記』의 편찬시기 | |

< 초 록 >

이 연구는 1859년 동래부에서 작성된 『萊府重記』筆寫本 2冊을 대상으로 서지적 검토 및 중기의 구성체제, 작성시기와 중기 내에 수록된 기록물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萊府重記』의 작성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卷首 첫 행에 목서된 ‘己未八月日’을 참조하고 중기에 수록된 ‘戶房色’의 하위항목 ‘都書員次知秩’을 대조해 본 결과 1859년 8월을 전후로 新官과 舊官의 교체에 따른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 동래로 부임한 부사는 ‘鄭獻教’로 확인되었다.

둘째, 『萊府重記』의 전체적인 기술체제는 부서명인 ‘色’ 아래로 현재의 물품 수량 및 加入되거나 支出된 현황 등 재고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하위항목으로는 ‘秩’을 두어 해당 물품의 수량을 기입하고 있으며, 또 해당 연도에 부사가 加入하고 別備한 물품에 대한 기록과 내력에 대한 설명인 懸註가 있다. 총 28곳의 부서의 물품현황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 책의 권말에는 府使, 座首, 軍官을 비롯하여 각 色吏들의 手決이 차례대로 기입되어 있다.

셋째, 각 부서별로 보관된 書冊과 文書, 戶口帳籍 및 紙筒庫로 나누어 기록물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戶房에 문서류 21종, 禮房에 57종의 유교 경전류, 역사서, 교훈서 등이 있었으며,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swallowyr@nate.com)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asslwer@naver.com)

접수일: 2014년 12월 2일 최초심사일: 2014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24일

禮房의 紙筒庫에는 14종의 서책이 비치되어 있었다. 기타 11개의 부서에서는 1758년부터 1840년에 加入된 25종의 기록물이 보관되고 있었고, 戶口帳籍은 84종이 戶籍色에 보관되어 있었다. 紙筒의 항목에서는 1859년에 封庫된 창고는 14곳이었으며, 1738년에 처음으로 문서류 35종이 加入되었다. 이후 19명의 동래부사에 의해 加入된 문서류는 총 57종이며, 대부분 節目, 奴婢文書, 量案 등이 보관되고 있었다.

要語: 東萊府, 『萊府重記』, 『東萊邑誌』, 書冊, 文書, 戶口帳籍, 紙筒

<ABSTRACT>

This research had prudently analyzed 2 manuscripts of 『萊府重記(Raebujunggi)』 bibliographically in the aspects of organizations, written period and contents and recognized following facts.

First, '己未八月日' in preface of 『Raebujunggi』 had been referred as a method to discover written period. In addition, 『Raebujunggi』 had been assumed to have been written during task handover period due to substitution of Gugwan to Shingwan in August, 1859 after comparison process of 'Hobangsaek's subcategory, 'Doseowonchajijil'. Moreover, 'Jeong Hyeon-Gyo' had been acknowledged to have been designated as a then governor of Dongnae.

Second, 『Raebujunggi』's description consists of inventory status such as current amounts of products or conditions of expenditure under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Saek'. 'Jil', as a subcategory, also contains amounts of products but differs with 'Saek' as it contains records of products the governor had applied and prepared in certain years and hyeonju, which includes detailed explanation of the records. Inventory status of total 28 departments are recorded and Busa, Jwasu, Gungwan and signatures of other government officials of Saek had made entries on every last pages of 『Raebujunggi』.

Third, through examinations of Seochaek, documents, Hogujangjeok and Jitonggo in each department, Hobang had contained 21 documents and Yaebang had included 57 collections of Confucian scriptures, history books and didactic books. In addition, 14 varieties of Seochaeks had been placed in Jitonggo of Yaebang. Furthermore, 25 kinds of records from 1758 to 1840 had been stocked in other 11 departments and 84 collections of Hogujangjeok had been located in Hojeoksae. In lists of Jitong, 14 places had been prohibited in 1859 and 35 kinds of documents had been constituted in 1738 for the first time. Furthermore, 57 varieties of documents such as Jeolmok, documents of slaves and Yangan had been spawned by later 19 governors of Dongnae.

Key words: Dongnaebu, Raebujunggi, Dongraeupji, Seochaek, Documents, Hogujangjeok, Jitong

1. 머리말

이 연구는 조선시대 지방의 官衙에서 물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그 사실 확인과 대조를 위해 작성된 ‘重記’ 중 東萊府에서 편찬된 『萊府重記』筆寫本 2冊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서책들의 현황과 戶口帳籍 및 紙筒庫에 보관되었던 文書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것이다.

중기는 조선 초부터 『朝鮮王朝實錄』에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太宗實錄』¹⁾에 처음으로 중기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 『世宗實錄』²⁾에서 ‘사용한 물건에 대해 창고 관리가 중기에 올리도록 할 것’을 아뢰는 기록을 통해 물품의 현황을 중기에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世祖實錄』³⁾에는 ‘司憲府에서 濟州牧使로 삼은 元志於에 대해 광주 등 고을의 貢物인 海竹을 중기에 기록하지 않아 覈問하고 있다’는 기록에서 물품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의 확인을 위해 중기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肅宗實錄』⁴⁾에서 ‘錢穀의 출입은 모두 문서가 있고, 新官과 舊官이 교대할 때는 모두 중기가 있다’라고 한 것에서 중기의 의미와 그 용도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는 없지만 경상남도 지역의 중기를 다룬 연구로 安陰縣의 『丁卯十一月日 各項都重記』⁵⁾가 있으며, 단행본으로 영남지역 중기 28종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重記 I』과 『重記 II』⁶⁾가 있다. 이 외에도 光州牧,⁷⁾ 羅州牧,⁸⁾ 任實縣⁹⁾ 등 특정 지역의 중기를 다룬 연구와 朝鮮朝의 官廳

1) 『太宗實錄』太宗17年 5月 己未(條).

2) 『世宗實錄』世宗2年 1月 庚戌(條).

3) 『世祖實錄』世祖5年 1月 庚子(條).

4) 『肅宗實錄』肅宗44年 5月 辛酉(條).

5) 南權熙, “慶尙道 安陰縣의 『丁卯十一月日 各項都重記』 分析,” 『嶺南學』 제21호(2012. 6).

6) 영남문화연구원, 『重記』 I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9).

영남문화연구원, 『重記』 II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9).

7) 金德珍, “『光州牧重記』 解題,” 『嶺南文化研究』 제21집(1992).

8) 박진철, “1693년 重記를 통해 본 全羅道 羅州牧의 軍備 實態,” 『東國史學』 제46집(2009).

9) 南權熙, “조선후기 전라도 임실현 <중기>에 수록된 기록자료 분석,” 『書誌學研究』 제57집(2014. 3).

會計로서 중기를 다룬 연구¹⁰⁾ 중기자료 분석에 의한 기록관리 연구¹¹⁾ 등이 있다.

현재까지 지방사 연구에서 중기가 邑誌類 만큼 폭넓게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경상남도에 소재한 지역에서 작성된 중기 11종¹²⁾ 중 기록물에 관한 연구 일부가 앞서 소개한 『重記 I』에서 대략적인 해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萊府重記』에 수록된 내용 중 서책 및 문서와 관련된 기록물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개괄하여 지방관아 중 동래부 읍치에서 사용 및 보관된 서책이나 문서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重記 I』에서 언급된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동래부에서 작성된 『래부중기』의 형태 서지사항을 비롯하여 중기의 구성 및 체제, 기록물과 관련된 항목을 부서별로 세분화하고 서책과 문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조선 후기 동래부에 소장되었던 기록물(書冊 및 文書)의 현황과 府使別로 기록물이 加入된 시기 등을 대조하여 물품관리가 어떤 형태로 체계화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0) 朴源澤, “朝鮮朝의 官廳會計-重記와 解由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87).

11) 南權熙, “重記資料 分析에 의한 朝鮮時代 地方 官衙의 記錄管理,” 『社會科學』 14(2002).

12) 다음 표는 영남문화연구원(2009) 『重記 I』과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重記名	作成機關	作成年度	所藏處
1	丁卯十一月日各項都重記	安陰縣	1687년	사우당 종택
2	慶尙右兵營遞等重記	慶尙右兵營	1852년	규장각
3	沙近道重記	沙近道	1854년	개인소장
4	萊府重記	東萊府	1859년	국립중앙도서관
5	慶尙右兵營蠶石山城軍餉穀重記磨勘成冊	慶尙右兵營	1863년	규장각
6	金海府都重記	金海府	1874년	일본 河合文庫
7	趙等內重記	河東郡	1876년	규장각
8	陝川郡各房都重記	陝川郡	1886년	규장각
9	慶尙左兵使重記時用下數爻區別成冊	慶尙左兵營	1888년	규장각
10	慶尙道右兵營遞等重記磨勘成冊	慶尙右兵營	1888년	규장각
11	慶尙右兵營遞等重記磨勘成冊	慶尙右兵營	1895년	규장각

2. 동래부의 역사와 지리적 배경

2.1 역사와 지리

東萊府는 현재 부산광역시의 16개 구·군 중 하나인 동래 지역을 지칭하는 옛 지명이며, 경상도에 있던 14개의 都護府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의 동래는 조선의 관방이자 외교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쓰시마[對馬島]와 인접한 위치로 인해 국방과 외교에 있어서 최일선에 놓여 있었기에 군사기지(水營·鎭)와 倭館이 설치되었으며, 방어시설(東萊邑城·金井山城 등)도 수축하게 되었다. 『備邊司謄錄』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戰船이 지금은 비록 혁파되었지만 동래부가 南方 제1의 關防¹³⁾이라 기록하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3권과 『東萊府邑誌』¹⁴⁾의 ‘建置沿革’을 토대로 동래부의 연혁을 살펴보면 동래는 옛날의 菴山國¹⁵⁾이며, 신라가 점유하여 居漆山郡을 두었다. ‘東萊郡’라는 지명은 757년 신라 景德王 때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고려조에 들어와서 1011년(현종 2)에 동래성이 축조되었고, 1018년에는 동래군이 縣으로 격하되어 蔚州의 속현이 되었다. 그뒤 縣令을 두었으며, 본조에 들어와서는 1397년(태조 6)에 처음으로 鎭을 설치되어 兵馬使가 判縣事를 겸하게 되었다. 세종조에는 僉節制使로 개칭하였고, 1547년(명종 2)에 동래현이 都護府로 승격되었다. 동래부는 일본 사신이 오가는 첫 길목에 있기에 그 비중이 義州와 같다 하여 府使로 승격시키고, 문관과 무관 중 堂上官을 골라 부사로 파견하여 城을 단속함과 동시에 일본 사신을 상대하게 했다. 임진왜란이 반발하면서 왜와 화친관계가 단절되자 현령으로 강등했다가 1599년(선조 32)에 다시 府로 승격되었다. 이처럼 고려시대는 ‘東萊縣’으로 조선시대에는 ‘東萊鎭’이 되어

13) 『備邊司謄錄』 肅宗元年 2月 4日(條).

“… 東萊則戰船今雖革罷 既是沿海 且係南方第一關防 不可無別樣激勸之道 …”

14) 『東萊府邑誌』는 1759年本(韓國教會史研究所 所藏), 1832年本·1871年本·1899年本(奎章閣 所藏)이 현전하고 있다.

15) 혹은 ‘萊山國’이라고도 한다.

군사상의 요충지로 부각되었다가 ‘東萊府’로 승격된 것이다.

『輿地圖書』경상도 동래편의 城池條에는 李詹이 쓴 『東萊邑城記』의 글귀가 수록되어 있는데, 元帥 朴公이 金海府使로 있을 때 고을을 부흥시킬 생각을 품고 軍官과 여러 有司에게 말하기를 “동래 고을은 동남지방에서 으뜸이다. 바다 자원이 넉넉하고 토산물이 풍부하여 나라의 수요에 기여함이 적지 않다…”¹⁶⁾라고 동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동래부읍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동래부의 산천으로는 輪山, 荒嶺山, 金井山, 鷄鳴山 등과 梵魚川, 絲川, 溫井 등이 있다. 이중 금정산은 현재 금정구와 양산시 동면에 걸쳐있는 산이다. 금정산 산마루에 3丈 정도 높이의 돌이 있는데 그 위에는 우물이 있다. 한 마리의 금빛 물고기가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우물 속에서 놀았다하여 금정산이라 이름지었다¹⁷⁾고 전한다. 금정산 기슭에 있는 溫井은 현재의 동래온천을 말하는데, 물의 온도는 닭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높으며 병을 지닌 사람이 목욕만 하면 곧 낫는다¹⁸⁾는 설이 있다. 李奎報(1168-1241), 鄭誦(1309-1345), 朴孝修(?-1377), 權躡(1387-1445) 등 온정을 소재로 한 題詠¹⁹⁾도 다수 남아있다. 또 申叔舟의 『靖遠樓記』에서는 “지세가 바다에 인접해 있고 대마도와 가장 가까워 연기와 불빛까지 서로 보이는 거리이니 실로 왜인이 오가는 요충지이다”라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각종 사료에 나타난 동래부는 조선시대까지 행정과 국방의 중심지였으며,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동래야류, 동래한량춤, 동래학춤 등 양반의 문화와 예를 중시하는 유교문화와 동래읍성지, 북천동 고분군 등의 유형·무형문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 깊은 고장임을 알 수 있다.

16) “東萊爲縣東南之第一也 海錯之饒土物之富國家之資焉者不資…”

17) 『新增東國輿地勝覽』卷23, 慶尙道 東萊縣 ‘山川’.

18) 『輿地圖書』慶尙道 東萊都護府 ‘山川’.

19) 上揭書.

2.2 동래부의 주요 시설

조선시대의 관아는 크게 중앙관아와 지방관아로 나뉘는데, 지방관아는 대개 읍성 내 북쪽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서쪽에 東軒(또는 衙軒), 동쪽에 客舍를 두고 있다. 동헌은 수령이 직접 공무를 처리하던 곳이며,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관아의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동래부 동헌은 현재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60호로 지정되어 있다. 동래부가 국방과 대외외교상 중요시 되던 곳이기에 관아시설도 다른 고을에 비해 규모가 컸다.²⁰⁾

동래부의 관아 건물에 대해서 『동래부읍지』(1832년)의 ‘公廨條’를 통해 살펴보면 忠信堂(衙軒), 篤敬堂, 緩帶軒, 燕深堂, 出使廳, 誠信堂, 賓日軒, 宴大廳, 그리고 倭館이 있었다. 또 ‘宮室條’에는 客舍와 草梁客舍가 기록되어 있어서 이 당시 동래부 관아에 소재한 건물명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重記에 수록된 내용 중 물품의 상태나 변동 사항의 여부에 따라 물품의 수량 아래에 세부내용을 추가하여 기입하고 있는데, 그중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보관하던 물품이 타 시설에 옮겨진 사례도 있다. 대표적 시설로 鄕校, 書院, 寺刹을 꼽을 수 있으며, 각 부서별 서책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앞서 이 시설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동래부의 역사와 지리에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동래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인 鄕校와 書院, 梵魚寺를 비롯한 寺刹에 대해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2.2.1 鄕校

동래향교에 대해서 『顯宗實錄』²¹⁾에는 부산의 倭人差使와 그의 수행원이 작은 집에 오래 거처하다보니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동래향교에도 갔었다는 기록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다. 또 『東萊府誌』²²⁾의 學校條에는 동래향교의 위치에 대해

20)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의 역사와 문화재』 (부산: 부산광역시, 2001), 105.

21) 『顯宗實錄』 顯宗13年 4月 甲辰(條).

“釜山倭差 從倭等稱以久處小室 不堪鬱結 時時闌出 至於東萊鄕校”

22) (影印本) 『東萊府誌』(1740) 學校條 ; 『東萊史料』 2 (서울: 驪江出版社, 1989), 28.

설명하고 있는데, 처음 성의 동쪽 2리에 있었으며, 임진왜란으로 대성전이 불탔으며, 1604년(乙巳)에 동래부사 洪遵(1557-1616)²³⁾이 大成殿을 重建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부사에 의해서 제향공간을 중심으로 중건 및 중수되어 1813년 동래부사 洪秀晩이 지금의 자리에 移建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래부중기』에 기록된 내용 중 다른 부서의 물품이 향교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는 28종의 사례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五倫行實 1卷	神武壇儀 1卷	綸音本秩冊 1卷
忠孝經 1卷	訓義小學大全 1秩 4卷	五倫行實 4卷
訓義小學大全 10秩	文忠註義 1秩 5卷	鄉禮合編 1秩 2卷
訓義小學大全 諺解 5卷	明儀錄 3卷	奎章全韻 1卷
五子近思錄 4卷	續儀 1卷	七書 1秩(具諺解)
祭服 4件	綸音 1卷	鄉校匣燹節目冊 1卷
養鼎圖解 上, 下卷	冊封綸音 1卷	甌 1坐
李先生遺訓冊 1卷	綱目 76卷	金文正公文集 8卷
莞草席 16立(付地衣 2部)	鄉約合部 1卷	東西廡地衣 11立
木岱子 2件	沙瓮 1坐	并養庫節目冊 1卷

향교에서 교육에 필요한 『訓義小學大全』이나 『七書』, 『五子近思錄』 등의 서적을 포함해 東·西廡의 돛자리, 시루, 제복, 왕골자리 등 제향에 쓰이는 물품들도 향교에 옮겨져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2.2 書院

동래향교와 함께 이 지역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한 교육기관으로 安樂書院이 있었다. 『大東地志』의 祠院條에는 안락서원이 1605년(선조 38)에 세워졌고 1624년(인조 2)에 賜額되었으며, 1652년(효종 3)에 忠烈祠라 고쳐 사액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東萊府邑誌』²⁴⁾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안락서원은 東萊府 邑內里 安樂里에

23) 洪遵은 1604년 1월부터 1605년 12월까지 동래부사로 재임하였다.

24) (影印本)『東萊府邑誌』(1759) 坊里條 ; 『東萊史料』 2(1989), 250.

위치하고 있었다. 忠烈祠里와 安樂里가 서원마을로 바뀌면서 이름을 院里라 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순절한 宋象賢(1551-1592) 부사와 鄭撥(1553-1592) 장군 등을 위한 安樂書院이 마을의 중심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안락서원은 송상현의 공을 비롯해 선열들의 호국 충절의 정신을 후학들이 본받게 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학문을 가르치던 학교였음을 알 수 있다. 1652년(효종 3)에 당시 동래부사였던 尹文舉(1606-1672)의 제안에 따라 동래읍성 남문 안에 있던 忠烈祠를 현재 동래구 안락 1동으로 이전하였으며, 사당과 강당, 東齋, 西齋를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래부중기』에 수록하고 있는 물품 중 ‘忠烈祠誌 冊板’과 ‘『七書』 1秩’(諺解本 포함)이 禮房의 紙筒庫에서 서원으로 옮겨져 보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2.3 寺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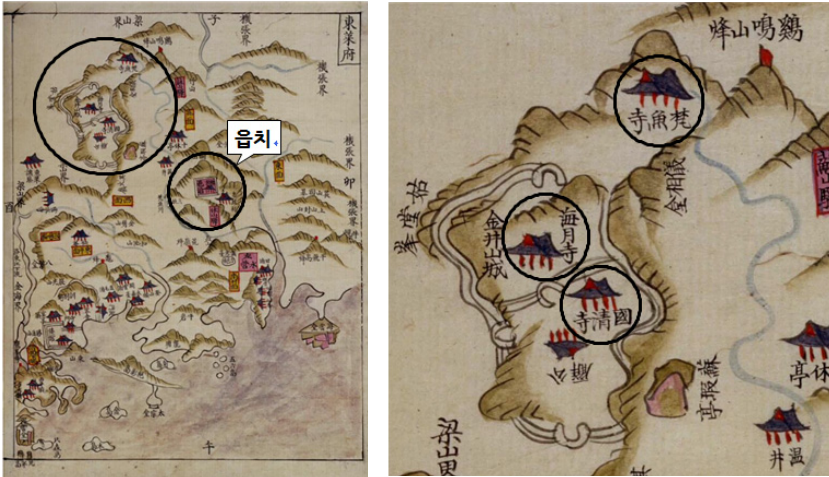
동래부의 사찰은²⁵⁾ 梵魚寺, 曉義寺, 翫月庵, 隱仙庵, 淸蓮庵, 南庵, 大成菴, 安寧菴, 元曉菴, 嗣祖菴, 國淸寺, 海月寺, 彌勒菴, 雲水寺 등이 있었다. 이 중 『래부중기』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물품이 사찰로 옮겨진 곳으로는 범어사, 국청사, 해월사가 있었으며, 각 사찰별로 보관된 물품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寺刹別 物品 現況

梵魚寺	國淸寺	海月寺
擔桶 4坐	擔桶 2坐	擔桶 6坐
小桶 3坐	小桶 3坐	小桶 3坐
	鎗柄 100柄	長箭竹 3,000箇
	長鎗竹 20,000箇	片箭 5,000箇
	黑角弓 100張	烏銃 130柄
	烏銃 130柄	甘醬 6瓮
	大耳食鼎 1坐	大耳食鼎 1坐
	校子弓 50張	校子弓 50張
	無羽箭 500箇	無羽箭 500箇
	鎗 187柄	鎗 143柄

25) (影印本) 『東萊府誌』(1740) 佛宇條 ; 『東萊史料』 2 (서울: 驪江出版社, 1989), 267-268.

국청사와 해월사에는 흙이나 모래를 나를 때 쓰이는 담뚱, 검은 무소의 뿔로 만든 활, 새총, 깃없는 화살, 창 등이 보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량의 군사용품이 국청사와 해월사에 소장되고 있었던 이유를 파악하고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廣輿圖』의 동래부 지도에서 사찰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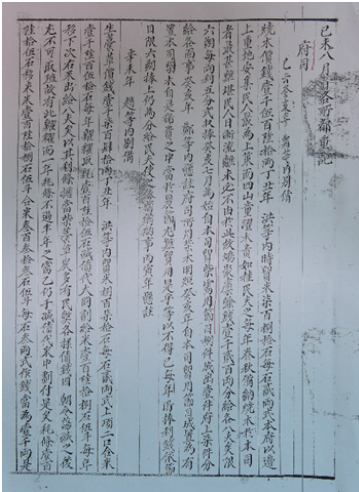
<그림 1> 『廣輿圖』(奎章閣 所藏本)

동래부 읍치에서 왼쪽으로 보면 金井山城이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전국적으로 쌓았던 산성 중의 하나로 『동래부지』(1740년)의 城郭條에는 ‘在府北十五里’에 위치하고 있다고 수록되어 있다. 동래부의 위치상 왜적 방어의 최전방 기지였기 때문에 해안에는 左水營, 釜山鎮, 多大鎮 등의 鎮營이 있었고, 북쪽 金井산에 산성을 쌓아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위의 지도에서 국청사와 해월사는 금정산성 안에 범어사는 밖에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청사와 해월사가 범어사에 비해 군사용품을 다량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금정산성 내에 설치된 將臺, 中軍所, 教鍊廳, 軍器庫, 火藥庫, 僧將所, 山城倉 등의 시설과 함께 왜적을 방어하는 기능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萊府重記』의 書誌

3.1 『萊府重記』의 형태



卷首面



表紙面

『萊府重記』는 동래부의 관청에서 사용 중이거나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현황 및 재정내역을 기록한 책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筆寫本 2冊(1冊-113張, 2冊-22張)으로 제작되었으며, 표지에는 ‘己未八月日 萊府重記’라 목서되어 있다. 또 본문의 첫 행에는 ‘己未八月日各所都重記’라는 제목이 기입되어 있다. 『래부중기』의 형태사항으로 邊欄과 界線은 筆寫되어 있으며, 行數는 16行이나 字數는 일정하지 않다.

細目을 기술할 때는 1字에서 2-3字를 내려 쓰고 있으며, 註는 雙行으로 기입하고 있다. 권수와 권말 면에는 책의 연결부를 포함해 펼친 양면에 官印이 각 3곳 捺印되어 있고, 본문에는 각 장마다 양면에 1곳이 보이지만 印文을 판독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각 책의 권말에는 府使, 座首, 軍官의 수결을 비롯해 각 부서별 色吏의 직함, 성명, 그리고 수결이 기록되어 있다. 1책에는 24명, 2책에는 4명의 담당자가 각 권말에 기입되어 있다.

3.2 구성 및 체재

『래부중기』 1책에서는 戶長, 戶房色, 禮房色, 兵房色, 刑房色, 工房色, 大同/防役 兼色, 接賓色, 軍器色, 修城倉色, 山城倉色, 官廳色, 貿易色, 雇馬色, 醫生色, 戶籍色, 紙筒, 親兵衛廳, 作隊廳, 將官廳, 別騎衛廳, 教鍊廳, 都訓道, 會計色의 순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2책은 書契色, 釜倉色, 支待色, 日供色으로 총 28개 부서의 물품 현황을 수록하고 있다.

전체적인 기술체제는 부서명을 나타내는 ‘色’ 아래에 현재의 물품 수량, 加入과 지출된 현황 등 회계 및 재고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 항목으로 ‘秩’을 두어 해당 물품의 수량을 기록하고 특정한 연도에 부사가 加入하고 別備한 물품에 대해서도 干支연도와 ‘[某姓]等內加入’이라는 소항목을 써서 기술하고 있다. 또 물품에 대한 내력을 기록한 懸註가 있다.

물품들을 기술한 방법으로 物目이나 物名은 내려쓰지 않고 세부항목과 추가항목 및 等內別 新備와 加入은 2-3칸 내려서 기술되어 있다. 물품들에 대해 연관성이 있을 때는 가로선을 그어서 물품의 상태(鄉校 上, 破破無形 등)나 갖춰진 시기(丙子年, 甲寅年 尹等內備上 등)를 줄 아래에 묶어서 기록하고 있다.

각 色의 내용이 끝나면 ‘第○張 ○行終’을 붙여서 글의 끝 지점임을 표시함과 동시에 부서별 물품의 현황에 대해 정확한 장수와 행수를 기입하고 있는데, 내용을 추가 기입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표식이다. 그 다음 행 아래에는 ‘○○色 姓名’이나 ‘○○廳所任 姓名’으로 부서별 色吏의 성명이 기입되어 있다. 『래부중기』의 전반적인 기술체제에 대해 예방색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후기 동래부의 『萊府重記』에 수록된 기록물 분석

禮房色

鄉校 祭器秩

籙篋 35立
42坐內 10坐庚子年 李等內修補
籙爵 7坐丙辰年 徐等內修補

(中略)

書冊秩

論語 2秩
孟子 6秩
書傳 1秩 10卷
解 1秩 5券內 第3卷 孫萬雉無面

(中略)

忠烈祠 祭器秩

籙燭臺 2雙
木卓床 2坐
祭服 6件

(中略)

紙筒庫書冊秩

海東諸國記 2卷內 1卷 已去甲申八月以前無 1卷 禮房授
東醫寶鑑 1秩 25卷內 2卷 已卯九月以前無 在23卷
辛丑年 洪等內別備
伽倻琴 1坐 敎房授 破破無形
文忠註義 1秩 5卷 鄉校上

(中略)

第十四張二十六行終

禮房色姜秉玖

1책과 2책의 각 권말에는 행정업무와 사무 책임자의 순서대로 府使(手決), 座首 郭(手決 無), 軍官 金(手決)이 기록되었고, 다음 행에는 1859년에 작성된 『래부중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책임을 맡은 重記色 金文健(手決)과 金必宸(手決)이 있다.

다음으로 ‘자신들이 중기를 담당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고 점검하면서 기록하였으니 이후 이 내용에 대해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자신들이 맡을 것’²⁶⁾이라는 글과 부서별 관리들의 직함과 성명, 수결이 기입되어 있다.

26) ‘白等矣徒等次知重記詳細考閱書錄爲白去乎日後如有相左之事是白去等矣徒等處當推敎事’; 부사를 비롯한 담당 관리들이 정확하게 점검하고 살펴서 쓴 기록이므로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部署別 擔當色吏

	부서명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
1	戶長	李時允	15	醫生色	徐季昊
2	戶房色	趙啓元	16	戶籍色	白奇昊
3	禮房色	姜秉玖	17	紙筒	孫在源
4	兵房色	朴仁健	18	親兵衛廳	河斗滿
5	刑房色	魚聖駿	19	作隊廳	劉仲偉
6	工房色	白壯昊	20	將官廳	金斗崙
7	大同/防役 兼色	金斗遠	21	別騎衛廳	金永禧
8	接賓色	辛世榮	22	教鍊廳	金麗漢
9	軍器色	金章韻	23	都訓道	金宗弼
10	修城倉色	金光振	24	會計色	金斗星
11	山城倉色	韓宇烈	25	書契色	金宜健
12	官廳色	具儀俊	26	釜倉色	朴仁曄
13	貿易色	文仁翰	27	支持色	李雨成
14	雇馬色	李倂根	28	日供色	辛聖宇

관아에서 이 重記가 작성될 때 각 부서별로 담당했던 色吏(담당자)들은 모두 28명이며, 金斗遠은 大同色과 防役色을 겸직하고 있다.

한편 『래부중기』에 기술된 물품 중에서 물품의 단위 표기법과 현존상태 및 수량, 물품 관리의 변동사항이나 처리사항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다음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部署別 物品의 記入 例示

部署	物品	數量	變動 및 處理事項
禮房色	東醫寶鑑	1秩 25卷	移上醫所 內 1卷 朴泰云丁丑七月以前無面傳來記付
	海東諸國記	2卷	內 1卷 已去甲申八月以前無1卷禮房授
	木笠	2箇	厲祭壇上
	掛子	6件	禮房授 破破無形
	長鼓	1坐	修補工人授
官廳色	釜鼎	3坐	破破
戶房色	公木	20尺	腐傷故乙酉報營燒火

조선 후기 동래부의 『萊府重記』에 수록된 기록물 분석

部署	物品	數量	變動 및 處理事項
別騎衛廳	鞭棍	300柄	內 12柄破破 5柄暫破 2柄戊戌年覆試時破傷
守倉色	將臺	5樑閣 9間	丁丑年 洪等內移建
兵房色	鎗	3柄	蘓山站擺撥監官授
	大懸鈴	2箇	
	食鼎 壹坐	1坐	
官廳色	熟馱	4貼 9串	
	乾石魚	9束 8尾	
	活鷄	147首	

위의 예와 같이 『래부중기』에 기술된 물품의 수량에 관한 단위 표기법은 그 물품의 기능 및 재료와 속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件, 坐, 間, 竹, 雙, 面, 箇, 石, 柄, 訥, 把, 斤, 尺 등을 사용하고 있다. 서책은 卷, 冊, 秩, 件, 또 書案이나 紙筒櫃는 坐, 문서와 종이는 卷, 張 등을 사용했으며, 가죽이나 생선류 등은 首, 束, 尾, 貼, 串 등의 단위로 표기되어 있다.

다음 물품의 보관 상태에 관한 표기법으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현재 없는 경우에는 破無形, 破破無形, 暫破, 破破, 破傷, 破傷無形, 闕失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타인이나 기타 사유에 의해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는 孫萬雄無面, 腐傷故乙酉報營燒火, 連院釗等無面 등 분실자의 이름과 사유가 기록되어 있다.

물품의 관리와 처리현황의 표기법은 修補, 李等內新備, 鄉校紅門改建, 改備丙寅年鄭等內, 改備添鐵, 添鐵改造, 邑城水門改築, 改建盖瓦, 洪等內移建, 金等內別備 등으로 나타난다. 또 각 부서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 중 소장처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厲祭壇上, 禮房授, 鄉校上, 教鍊廳上, 巡營城役時上送內, 移上將官廳, 等內成置節日本司在, 戶房授, 軍器會外來, 李等內大丘府移送 등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3.3 『萊府重記』의 편찬시기

이 연구의 원전자료인 『래부중기』의 편찬시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지서명과 권수의 첫 행에 목서 기입된 ‘己未’년의 시기를 분석해보고 이 시기에 재임하고 있었던 동래부사의 인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래부중기』 1책의 ‘戶房色’ 하위항목 ‘都書員次知秩’에는 干支연도와 [某姓] 等內加入이라는 제목 아래에 都書員²⁷⁾이 갖추어 둔 서책의 현황이 기입되어 있다. 等內는 관원의 재임기간을 뜻하는 용어임으로 간지의 연도와 이 시기에 재임했던 동래부사를 대조해보면 정확한 편찬시기를 알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표 4> 都書員次知秩에서 物目的 加入時期 및 府使 對照

都書員次知秩의 記入內容	時期 및 府使 對照
乙亥年 林等內別備	1755년 林象元
壬午年 權等內別備	1762년 權濬
庚辰年 李等內別備	1820년 李堉
乙未年 李等內加入	1835년 李鐸遠
甲辰年 林等內別備	1844년 林永洙

‘도서원차지질’의 마지막에 수록된 ‘甲辰年 林等內別備’는 1844년에 재임했던 林永洙 부사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래부중기』의 서명과 권수제에 목서된 ‘己未’는 1844년 이후여야 하며 이로써 1739년, 1799년, 1859년, 1919년의 ‘己未’ 중 1859년(己未)이 『래부중기』의 편찬 시기가 된다.

다음으로 1859년에 재임했던 동래부사를 확인하기에 앞서 동래지역의 수령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肅宗實錄』에서 동래는 남쪽 변방의 중요한 땅이므로 직임이 가볍지 않다²⁸⁾고 언급되어 있다. 또한 『日省錄』에는 관직을 위해 사람을 뽑을 때 변방의 막중한 지역은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하는데, 동래와 義州는 우리나라

27) 지방관아의 서리 중에서 농지세의 책정을 담당하는 서리의 首長을 말한다.

28) 『肅宗實錄』 肅宗10年 2月 庚子(條).

“東萊乃南藩重地 爲任不輕”

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므로 백성의 마음에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맡길 수 없는 곳²⁹⁾이라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동래가 국방문제 및 왜인과의 교린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지역이었기에 동래부사의 역할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동래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동래부사에게는 군사시설 수축이나 군정 관리, 왜관의 통제, 왜사 접대 등과 같은 막중한 업무가 부여되었고 또 타지역의 목민관들처럼 ‘守令七事’에 해당하는 일도 수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의 동래부사들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遞職되기도 했다.³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동래부읍지』(1871년)에는 동래가 도호부로 승격되기 전인 동래현일 당시 재임했던 현감들의 성명, 재임기간, 교체사유가 실려있는데, 1506년의 金洪壽부터 1546년 金秀交 현감까지 총 20명³¹⁾이 동래현에 재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바로 다음해인 1547년(명종 2) 9월에 大臣 李芑(1476-1552) 등이 倭使接待事에 대한 건의를 하자 縣이 폐지되고 東萊府로 승격되면서 1546년에 초대 부사로 부임한 李允巖부터 1895년 池錫永 부사까지 349년 동안 총 256명이 동래부사로 재직하였다. 연대별로 동래부사의 인원을 파악해보면 1500년대는 39명, 1600년대 75명, 1700년대 82명, 1800년대는 60명이다. 동래부사의 임기는 평균적으로 약 1-1.5년 정도로 자주 교체되었으나 동래부사는 국방과 외교를 책임져야 하는 임무로 인해 국왕의 신임이 두텁고 강명한 인물이 많이 발탁되어졌다고 한다.³²⁾

1859년 『萊府重記』가 작성될 때 동래부의 재정내역에 대해 관리 감독하였던 부사를 확인하기 위해 『동래부읍지』(1899년)의 『府先生』에 의거하여 대조해 본 결과 ‘鄭獻教’임을 확인하였다. 1859년에 동래부사로 재임한 정헌교(1811-?)의 자는 穉承이며, 본관은 溫陽이다. 1848년(헌종 14)에 증광시 문과에 丙科 1위로 급제하였으며, 관직으로 弘文館修撰(1853) · 司諫院大司諫(1858) · 吏曹參議(1861) · 禮房承旨(1862) · 全羅道觀察使(1862) · 全羅監司(1862) 등을 역임한

29) 『日省錄』 正祖2年 5月 庚辰(條).

30) 부산박물관, 『東萊府使 忠과 臣의 목민관』 (부산: 부산박물관, 2009), 38.

31) 金洪壽, 金友曾, 尹仁復, 河珣, 禹從孫, 曹允武, 安從垣, 鄭湘, 許礪, 權世豪, 盧輔世, 盧公佐, 吳誠, 河錫範, 金殿, 鄭壽彭, 金彭祖, 林伯孫, 崔承張, 金秀交.

32) 부산박물관(2009), 6.

인물이다.³³⁾ 정헌교는 1859년 8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1860년 5월에 承旨로 이적되었다고 『부선생』에 전한다. 『래부중기』가 1859년 8월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정헌교가 동래부사로 부임하면서 신관과 구관의 교체로 인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哲宗實錄』에는 정헌교 부사와 관련된 기록이 실려있는데, 1860년(철종 11)에 정헌교가 關白의 承襲을 알리러 온 웨인 差使가 러시아·영국·프랑스·미국의 네 나라와 일본이 교류를 하려 한다는 것을 알리는 書契를 가져왔으니 신속하게 서계로 답을 내려달라는 狀啓를 올렸다³⁴⁾는 기록이 있다. 이외에도 『철종실록』에는 장헌교가 전라감사로 재임했을 때인 1862년에 부안, 장흥, 순천에서 일어난 민란에 대해 조정의 명을 받아 난을 진압했다³⁵⁾는 기록도 전한다.

현재 부산 금정구에는 정헌교의 頌德碑가 남아 있으며, 비문의 내용은 ‘府伯鄭公 獻教 永革弊瘼 萬世不忘壇’³⁶⁾으로 동래부사였던 정헌교의 공덕을 찬양하고 있다.

4. 기록물 관련 항목 분석

4.1 부서별 기록물 현황

지방관아에서 각 부서별 통치를 위한 행정 도구로서 서책 및 문서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래부중기』에서도 다종 다량의 서책과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부서별 기록물의 현황과 호구장적 및 관아의 각종 기록과 문서를 보관하는 곳인

33)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과 ‘한국고전종합DB’ 참고.

34) 『哲宗實錄』 哲宗 11年 8月 8日條.

“備邊司啓言 東萊府使鄭獻教狀啓 關白承襲告知差倭言內魯西亞 佛蘭西, 英咭利, 亞墨利加 四國 通貨於弊邦 故以此另具書契 別幅呈納 爲言 隨事往復 出於交隣間有事相聞之義也. 撰出回答書契 斯速下送.” 允之.

35) 『哲宗實錄』 哲宗 13年(1862) 5月 9, 21, 25, 28, 29日(條).

36) 부산광역시·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부산금석문』 (부산: 부산광역시·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2002), 123.

紙筒庫로 나누고, 특히 부서별 서책의 현황에 대해서는 戶房과 禮房(鄉校 書冊秩, 忠烈祠 書冊秩, 紙筒庫 書冊秩) 그리고 기타 부서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4.1.1 戶房

戶房은 지방의 戶口관리와 田結조사, 賦稅와 징수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이다. 1859년 당시 戶房色은 趙啓元이며, 호방색의 앞부분에는 곡식이나 특산물 등 관아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앞서 기록된 증기에서 기입된 양과 증감된 양을 쓰고 현재 남아있는 수량이 기입되어 있다. 또 私賑租, 留作租, 統營租, 防役別備租 등 각 조세의 현황도 포함하여 수록하고 있다.

호방색의 하위항목으로 ‘都書員次知秩’이 있다. 都書員은 지방관아의 서리 중에서 농지세의 책정을 담당하는 서리의 首長이며, 이 항목에서는 도서관이 갖춰 놓고있던 서책이나 물품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도서관차지질’의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 물품 중 기록물 위주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戶房의 記錄物 目錄

	書名	卷數	變動事項
1	量田大帳冊	4卷	
2	行審冊	7卷	丁未 改書
3	遵守冊	1卷	
4	摠計冊	1卷	
5	前後改修正草	8件	
6	已去庚申年行審冊	8卷	
7	丙辰行審冊	8卷	
8	已去庚子年田畝改打量冊	7卷	
9	摠計冊	1卷	
10	已去庚子辛丑新加耕及陳遷起并錄冊	1卷	巡營成貼紙筒庫上
11	多大牧場田畝改打量大帳冊	1卷	
12	已去庚子改量田畝正案冊	9卷	
13	摠計冊	1卷	
14	各面合冊	7卷	
15	遵守冊	1卷	

	書名	卷數	變動事項
16	各面田畝行審冊	23卷	已去 丙子 李等內 書役所上
17	各面社會稷畝參百玖拾參斗柒刀地只 已去辛丑年 鄭等內 買置成冊		紙筒庫上 戊寅年 趙等內
18	各面行審冊	76卷 戊午年 具等內改書	書役所上 → 移屬防役廳
19	各面行審冊	76卷 甲子年 改書	
20	司倉生豬羔喂 [○] 養糠太穀變通冊	12卷	內 1卷 鄉廳上 10卷 各面上 1卷 戶房授
21	北面釜山沙下三面民役變通節目冊	3卷	該面分授

‘도서원차지질’의 항목에 수록된 기록물은 총 21종이다. 대부분은 토지대장(量案)인 量田大帳冊, 田畝改打量冊, 田畝改打量大帳冊, 改量量田畝正案 등이며, 측량에 관련하여 行審冊과 摠計冊이 시기별로 남아있다.

『行審冊』은 전세 행정에 사용하기 위해 매년 작성한 장부이며, 遵守冊은 조선 시대 量田의 방법과 양전을 위한 기준척의 크기를 제시한 문서이다. 효종때에 각 도의 전지를 다시 측량한 후 준수책을 반포하였다³⁷⁾고 한다.

또 책의 서명과 수량 아래에는 책이 어느 시기에 어떤 기관으로 이동했는지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기입하고 있는데, 각 시기를 파악해서 그 당시 재임했던 부사를 대조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書冊의 變動事項에 따른 時期 및 府使 對照

書名	變動事項	變動時期 및 府使 對照
行審冊	丁未 改書	未詳
各面田畝行審冊	23卷 已去丙子 李等內書役所上	1756년 李裕身
各面社會稷畝參百玖拾參斗柒刀地 只已去辛丑年 鄭等內 買置成冊	紙筒庫上 戊寅年趙等內	1758년 趙巖
各面行審冊	76卷 戊午年具等內改書	1738년 具宅奎

37) 『經世遺表』 第9卷 「地官修制」, 田制別考.

“... 遵守之冊 頒於孝宗之時 而結負之法一變 遵守冊以下 並詳原篇 ...”

책의 이동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紙筒庫’, ‘書役所’, ‘防役廳’, ‘鄉廳’, ‘戶房’이 있었으며, 마지막에 기입된 『北面釜山沙下三面民役變通節目冊』은 북면, 부산, 사하인 3면의 民役に 대한 일처리 내용이 담겨있는 절목책이며, 3권을 해당하는 면에 나누어 주었다.

4.1.2 禮房

禮房은 의례나 외교, 제사, 교육(科擧)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이다. 예방색을 담당했던 色吏는 姜秉玖이며, 예방의 하위항목은 처음 부분에 수록된 鄉校祭器秩부터 (鄉校)書冊秩, 社稷祭器秩, 厲祭祭器秩, 忠烈祠祭器秩, (忠烈祠)書冊秩, 別廟忠烈祠祭器祭服秩, 鄭僉使別廟祭器秩, 紙筒庫書冊秩, 等內加入의 10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각 물품의 현황과 상태 등을 기입하고 있다. 이중 ‘향교서책질’과 ‘충렬사서책질’ 그리고 ‘지통고서책질’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장처별 서책의 종수, 서책 내용별 분류, 변동사항의 여부, 府使別 서책의 加入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향교 서책질’은 동래향교에 소장되었던 서책들을 점검하면서 수록한 목록이며,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인 향교의 특성상 많은 수량의 서책이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서책의 비중이 높음은 文治를 우선시 하였던 국가 정책에 부응하며, 수령의 지방통치에 기본이 되는 ‘七事’³⁸⁾ 중에서도 학교를 흥하게 하는 것(學校興)을 실천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³⁹⁾ 향교에 보관된 서책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38) ‘七事’는 守令이 지켜야 할 일곱 조항이며, 農桑盛·戶口增·學校興·軍政修·賦役均·詞訟簡·奸猾息을 말한다.

39) 남권희, “조선후기 전라도 임실현 <중기>에 수록된 기록자료 분석,” 『書誌學研究』 제57집 (2014), 23-24.

<표 7> 鄉校에 保管된 書冊 現況

	書名	卷數	變動事項
1	論語	2秩 7卷	
2	孟子	6秩 7卷	
3	書傳	1秩 10卷	
4	" 諺解	1秩 5卷	內 第3卷 孫萬雄 無面
5	史略	1秩 7卷	
6	"	初卷 2卷	
7	中庸	1卷	
8	" 諺解	2卷	
9	大學	1卷	
10	" 諺解	2卷	
11	小學	10秩 各 4卷	
12	" 諺解	2秩 各 4卷	
13	詩傳	2秩 各 10卷	
14	" 諺解	1秩 8卷	
15	家語	1秩 2卷	
16	書大文	2秩 各 上下卷	
17	明記編年	12卷	
18	孝行錄	1卷	
19	心經	上下卷	
20	三韻通考	1卷	
21	春種 ⁴⁰⁾	1卷	
22	奉先雜儀	1卷	
23	禮記	1秩 17卷	
24	春秋	2秩 各 8卷	
25	禮部韻	2秩 各 1卷	
26	晦齋集	3卷	
27	周易	1秩 14卷	
28	東史纂要	1秩 10卷	
29	論語 諺解	2秩 各 4卷	
30	孝經大義	1卷	

40) 『春種』은 원나라의 서예가인 雪菴 李溥光(1264-1307)의 글씨를 목각하여 만든 書帖을 말하며,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에 의해 규장각, 충남대, 계명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선 후기 동래부의 『萊府重記』에 수록된 기록물 분석

	書名	卷數	變動事項	
31	禮記大文	1秩 5卷	內 1卷 丁丑七月以前 宋希賢 無面記付流來	
32	儷文精選	1秩 6卷		
33	海編通記	1秩 10卷		
34	黃山谷集	1秩 10卷		
35	三綱行實	1卷		
36	古文眞寶後集	5卷		
37	喪禮備要	1卷		
38	圃隱集	2卷		
39	擊蒙要訣	1卷		
40	通鑑	2秩 各 15卷		
41	詩學指南	1秩 5卷		
42	杜詩諺解	1秩 18卷		
43	鄉約	1卷		
44	東醫寶鑑	1秩 25卷	移上醫所內 1卷 朴泰云	丁丑七月以前 無面傳來記付
45	鄉約集盛方	1秩 30卷	移上醫所內 16卷 朴宗俊	
46	五禮儀	1秩 18卷	紙筒庫上	
47	事文類聚	82卷		
48	春秋經傳	15卷		
49	列聖御製	2卷		
50	綱目	30卷		
51	聖學集要	7卷		
52	續綱目	13卷		
53	光國志慶錄	1卷		
54	戊申戡亂錄	4卷		
55	東儒錄	12卷		
56	三綱行實	8卷	各 7卷 七面 訓長教訓次授, 各 1卷 鄉校上	
57	五倫行實	8卷		

1895년 당시 향교에 소장되어 있었던 四書を 비롯한 교육용 서책은 모두 57종으로 확인되었다. 『三韻通考』와 『奉先雜儀』(1551-1643), 마지막에 기입된 『五倫行實』(1781년)의 간행시기를 통해 유추해보면 향교에 소장된 서책들은 조선중기에서 1781년 사이에 비치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교에 소장된 서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유교 경전류, 역사서, 교훈서,

문집류, 醫書 등으로 나누어 보면, 유교 경전류로는 『論語』, 『孟子』, 『大學』, 『中庸』, 『詩傳』, 『書傳』, 『周易』, 『春秋』, 『禮記』 등 사서오경이 있으며 諺解本도 갖추고 있다. 또 기본 학습과 관련된 서책으로는 『小學』, 『孝行錄』, 『三綱行實』, 『五倫行實』, 『五禮儀』, 『孝經大義』, 『古文眞寶後集』, 『擊蒙要訣』, 『奉先雜儀』이 있다. 역사서로는 『綱目』, 『續綱目』, 『史略』, 『通鑑』, 『東史纂要』, 『明紀編年』, 『東儒錄』, 『戊申戡亂錄』이 소장되어 있다. 또 『晦齋集』, 『圃隱集』의 문집류와 『列聖御製』, 『杜詩諺解』, 『詩學指南』, 『光國志慶錄』의 시문류가 있었으며, 교훈서로는 『聖學集要』, 『心經』이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106韻계 『禮部韻略』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편한 운서인 『三韻通考』, 향약에 관한 의약서 『鄉藥集成方』과 허준의 『東醫寶鑑』, 그리고 經史子集의 체제에 따라 事實과 詩文을 종류별로 모아 엮은 『事文類聚』 등 다양한 종의 서책이 동래향교에 소장되어 있었다.

책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書傳諺解』 1秩 5卷內 第3卷 孫萬雄 無面'과 같이 구체적으로 권차를 쓰고 누구에 의해 없어졌는지 이름을 밝히고 있으며, 『禮記大文』의 경우 1秩 5卷內 1卷이 丁丑年 7월 이전에 宋希賢에 의해 없어져 중기에 기록되어 전한다고 쓰여있는 것과 같이 해당년월을 기입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충렬사 서책질'은 동래의 忠烈祠 내에 소장되어 있던 서책들의 목록을 말하며, 그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 忠烈祠에 保管된 書冊 現況

番號	書名	卷數	番號	書名	卷數
1	書傳	10卷	6	文章軌範	上, 下卷
2	詩傳	10卷	7	鄉約條	5卷
3	孟子	7卷	8	尋源錄	1卷
4	伊洛演源錄 ⁴¹⁾	5卷	9	光國志慶錄	1卷
5	大學	4卷			

41) 『래부중기』에는 '伊洛演源錄'이라 쓰여 있는데, '淵'이 잘못 기입된 것으로 보인다.

동래의 충렬사에는 총 9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重記가 작성될 당시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는지 서명과 권수만 기입되어 있다. 충렬사의 서책 현황을 살펴 보면 향교 서책질에도 있었던 『서전』, 『시전』, 『맹자』, 『대학』이 소장되어 있었다. 또 宋代의 周敦頤 이하 유학자 46인의 언행 및 사적을 기록하고 도학의 연원과 계승을 밝히고 있는 朱熹의 저서 『伊洛淵源錄』이 5권 소장되어 있었으며, 『文章軌範』은 宋의 謝枋得(1226-1289)이 漢代부터 宋代까지의 문장 중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범이 될만한 69편의 글을 가려내어 만든 문집으로 上, 下권이 소장되어 있다. 『尋源錄』은 時到記라고도 하며 書院이나 祠宇에 봉안된 名賢과 戚緣이나 學緣이 있는 사람들이 남긴 일종의 방명록을 말하는데, 서명 앞에 간지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언제 기록된 심원록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1587년에 宣祖가 宗室辨系⁴²⁾의 일을 끝내고 여러 신하들과 화답한 시 등을 모아놓은 『光國志慶錄』이 1권도 소장되어 있었다.

한편 ‘충렬사 서책질’의 다음 항목으로 ‘別廟忠烈祠 祭器 祭服秩’이 있는데, 내용 중에서 『忠烈祠誌』 1卷과 『謁廟錄』 1卷이 기입되어 있다. 1859년의 충렬사 별묘에는 동래의 충렬사에 관한 기록이 담겨있는 『충렬사지』와 사당에 참배를 한 명부 기록인 『알묘록』이 각 1권씩 소장되어 있었다. 현전하는 『충렬사지』⁴³⁾에는 1808년에 동래부사로 재임 중이던 吳翰源의 跋文이 있는데, 충렬사 별묘에 소장된 『충렬사지』와 동일본인가의 여부는 중기의 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紙筒庫 書冊秩’은 禮房의 紙筒庫에 보관되어 있는 서책을 말하며, 이 서책들에 대해서도 소장의 유무와 관리한 이력 및 변동사항이 나타나 있는데, 다음 표와 같다.

42) 명나라의 『太祖實錄』과 『大明會典』에 잘못 기록된 태조 李成桂의 世系를 시정해 달라고 주청한 사건을 말한다.

43) 1808년 간행본으로 11卷 2冊인 『충렬사지』는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등이 있으며, 1800-1834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11卷 2冊인 『충렬사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표 9> 禮房의 紙筒庫에 保管된 書冊 現況

	書名	卷數	變動事項	備考
1	詞訟類聚	1卷		
2	演機新編	全秩 3卷	敎鍊廳授	
3	記效新書 ⁴⁴⁾	7卷	內 1卷 己卯九月以前無 乙卯九月還推同廳上 6卷 敎鍊廳上	
4	孫武子	1秩 3卷	內 1卷 己卯九月以前無 在 2卷	
5	將鑑博儀 ⁴⁵⁾	5卷	內 2卷 丁丑九月以前無	
6	萬病回春錄	8卷		
7	鍊兵實記	4卷	內 3卷 辛巳年 洪等內加入	1761년 洪名漢
8	海東諸國記	2卷	內 1卷 己去甲申八月以前無 1卷 禮房授	
9	決訟類聚	2卷	內 1卷 己卯九月以前無 在 1卷	
10	授敎輯錄	1卷	刑房授	
11	蘭雪集板	20立	工房授	
12	東醫寶鑑	1秩 25卷	內 2卷 己卯九月以前無 在 23卷	
13	醫學入門	全秩 17卷		
14	喪禮備要	1卷		

예방의 지통고에 보관된 서책은 총 14종이 기입되어 있으며, 보관상태나 이동에 의한 변동사항으로 1859년에 중기가 작성될 때 지통고의 서책은 총 60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통고에 보관된 서책들은 병서류가 5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將鑑博儀』⁴⁶⁾는 1489년 10월 20일조에 제도 관찰사에게 서신을 내려 지금 『장감박의』를 보내니 開刊하여 널리 반포하라는 기록이 있어 무장들의 필독서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法典類 3종, 醫書 3종과 喪禮書 1종씩

44) 『래부중기』에는 ‘記效新書’라 쓰여 있는데, ‘紀’가 잘못 기입된 것으로 보인다.

45) 『래부중기』에는 ‘將鑑博儀’라 쓰여 있는데, ‘議’가 잘못 기입된 것으로 보인다.

46) 『世宗實錄』世宗16年 3月 辛巳(條).

“傳旨兵曹 預辦幸慕華館 試取武學諸事. 又命試取時 先騎射 次擊毬 次一百五十步 次試五經四書 『通鑑』, 『將鑑博議』, 『小學』 武經七書中 從自願講一書.”

『成宗實錄』成宗20年 10月 甲辰(條).

“下書諸道觀察使曰 今送 『將鑑博議』 開刊廣布.”

조선 후기 동래부의 『萊府重記』에 수록된 기록물 분석

보관되어 있으며, 1443년 書狀官으로 일본에 다녀온 申叔舟(1417-1475)가 왕명에 따라 편찬하게 된 『海東諸國記』 2권이 보관되어 있다.

한편 예방의 지통고에 보관된 물품사항 중 ‘蘭雪集’ 冊板 20立을 工房에 준 것으로 기입되어 있다. 1832년과 1871년에 간행된 『東萊府邑誌』의 冊板條에 ‘蘭雪集板子 二十立在本府工房’이라는 기록과 필사본 『東萊府事例』(1868)의 工房條에 ‘冊板 蘭雪集 1秩’이라는 기록에서 『래부중기』가 작성된 1859년 전후로 공방에서 잘 보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방의 지통고에는 각 시기별로 재입했던 부사가 加入한 서책의 종수, 건수, 보관장소가 표시되어 있다. 각 간지의 연도와 그 시기에 재입했던 동래부사를 대조해보면 각 서책이 예방의 지통고에 가입된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 다음 표와 같다.

<표 10> 紙筒庫 內 府使別 書冊의 加入現況

年度	府使 對照	書名	卷數 및 狀態	
1739	鄭亨復	忠孝經	1卷 鄉校上	
1744	金漢喆	兵將圖說	1卷 敎鍊廳上	
1748	閔白祥	訓義小學大全	10秩	鄉校 上
		" 諺解	5卷	
		五子近思錄	4卷	
1749	鄭權	增修無冤錄	1卷 刑房授	
		鄉約	1卷 禮房授	
1750	黃景源	養鼎圖解	上, 下卷	
		李先生遺訓冊	1卷	鄉校上
		神武壇儀	1卷	
1751	趙載敏	均役廳節目冊	1卷 禮房授	
1758	趙曦	戎酒綸音	1卷 刑房授	
1761	洪名漢 ⁴⁷⁾	典錄通考	6卷 紙筒庫上	
		訓義小學大全	1秩 4卷	鄉校上
		文忠註義	1秩 5卷	
		訓義小學大全	5秩 合 20卷 分授於邑內面 東面 北面 西面 東平面 沙上面 都訓長	
1768	嚴璘	忠烈祠誌	2卷	
		鰲山名人錄	1卷	忠烈祠上

47) ‘辛丑年 洪等內別備’라 쓰여있으나 앞뒤의 연도를 통해 ‘辛巳’의 오자로 판단된다.

年度	府使 對照	書名	卷數 및 狀態	
1778	林鼎遠	明儀錄	3卷 鄉校上	
		續儀	2卷 內 1卷 禮房授 1卷 鄉校上	
1780	李致中	兵學指南	2卷 內 1卷 作廳上 1卷 教鍊廳上	
1783	李養鼎	繪音	10卷 內 1卷 鄉校上, 7卷 各面上, 1卷 作廳上, 1卷 鄉廳上	
1784	李義行	冊封繪音	14卷 內 10卷 各面上, 1卷 鄉校上, 1卷 梵魚寺授, 1卷 鄉廳上, 1卷 作廳上	
1786	洪文泳	綱目	76卷 鄉校上	
1794	尹弼秉	繪音本秩冊	1卷 入盛紅橫具鎖 金東軒上矣 庚戌年 移上邑內面所	
		繪音本秩冊	1卷 入盛楨子 鄉校上 丙申至乙卯	
		繪音冊	20卷 各面 2卷式 分授	
1798	鄭尙愚	五倫行實	4卷	鄉校上
		鄉禮合編	1秩 2卷	
		奎章全韻	1卷	
1809	吳翰源	忠烈祠誌冊板	書院上	
1820	李堉	七書	1秩 具諺解 書院上	
		七書	1秩 具諺解 鄉校上	
1822	李德鉉	鄉校厘弊節目冊	2卷 內 1卷 鄉校上 1卷 禮房上	
1840	李明迪	斥邪繪音冊	12卷 內 1卷 作廳上 11卷 各面 分授	
1845	林永洙	金文正公文集	8卷 自巡營來鄉校上	
1852	李彙寧	鄉約合部	1卷	

예방의 지통고에 보관된 서책들은 1739년 鄭亨復 부사에 의해 가입된 『忠孝經』 1권을 비롯하여 1852년 李彙寧 부사가 가져온 『鄉約合部』 1권까지 총 37종이 비치되어 있었다. 이중 鄉校로 옮겨 소장된 서책은 19종으로 가장 많으며, 禮房에 4종, 作廳에 3종, 教鍊廳과 忠烈祠 그리고 刑房에 2종의 서책이 각 처로 옮겨져서 보관되고 있었다.

1820년 李堉 부사가 가입한 『七書』 1秩은 언해본도 갖추어져 있었는데, 서원에 올려졌으며 1784년에 가입된 『冊封繪音』 14권 중 1권을 梵魚寺에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통고에도 『典錄通考』 6권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지통고는 예방의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래부 관아의 서책 및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했던 지통고를 말한다. 이처럼 부사별로 가입된 서책들이 각 부처에 옮겨 간 이력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부사별 가입한 서책 중 『訓義小學大全』은 1832년과 1871년에 간행된 『동래부 읍지』의 冊板條에 ‘訓義小學大全 板子 160立 在本府工房’이라는 기록과 『동래 부사례』(1868) 工房條의 ‘冊板 小學大全 1秩이라는 기록에서 이 책판으로 『훈의 소학대전』이 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영인본 『韓國의 冊板目錄』에서 동래의 책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東萊府의 冊板 現況

『各道冊板目錄』(1778) ⁴⁸⁾	小學大全 容八紙八束三張
	蘭雪集 容八紙十三張
『各道冊板目錄』(1840) ⁴⁹⁾	小學大全 容八紙八卷五張
	蘭雪軒集 容八紙一卷五張
	忠烈祠誌 容八紙五卷五張
『冊板錄』(未詳) ⁵⁰⁾	小學大全 白紙八束
	蘭雪集 白紙一束

동래부에 소장된 책판은 『小學大全』, 『蘭雪集』, 『忠烈祠誌』가 있었으며, <표 8>에서 1809년 吳翰源 부사가 가입한 물품으로 ‘忠烈祠誌冊板’이 書院에 올려져 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책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예방의 마지막에 가입된 ‘等內加入’의 항목은 『래부중기』를 작성한 1859년에 재입했던 정헌교가 가입한 물품으로 그 물품은 아래와 같다.

<표 12> 鄭獻教 府使의 加入物目

年度	府使 對照	物目	數量 및 狀態	
1859년	鄭獻教	掛子	4件	新備 禮房授
		戰笠	6件	
		長鼓	1坐	修補 工人授
		樂鼓	2坐	

48) 연세대학교 소장본 ; (影印本)『韓國의 冊板目錄』上(1995), 695.

49) 규장각 소장본 ; (影印本)『韓國의 冊板目錄』下(1995), 1273.

50) 개인 소장본 ; (影印本)『韓國의 冊板目錄』補遺·索引(1995), 1477.

정헌교 부사가 1859년에 가입한 물품으로 戰服과 군대나 의식에 쓰던 것을 새로 구비하여 禮房에 보냈으며, 長鼓와 樂鼓는 修理와 補修를 위해 工房의 匠人에게 보냈다고 기입되어 있다.

4.1.3 기타 부서의 기록물

『래부중기』의 28개 부서 중 앞서 살펴본 戶房과 禮房을 제외하고 兵房, 刑房, 工房, 接賓色, 軍器色, 守倉色, 山倉色, 官廳色, 貿易色, 雇馬色, 醫生的 11개 부서에서 기록물이 보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부서별 서명 및 수량을 파악해보고 기록물이 구비되었던 시기와 부사를 대조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3> 其他 部署에 保管된 記錄物 現況

部署(種數)	書名	卷數	府使 對照
兵房色 (1)	羅卒料米掾弊節目冊	1卷	1838년 成遂默
刑房色 (1)	欽欽新書	10卷	1845년 林永洙
工房色 (1)	排朔冊	1卷 本庫上	1758년 趙曦
接賓色 (1)	接賓廳節目冊	1卷 年久破破無形	
軍器色 (1)	軍器節目冊	1卷	1758년 趙曦
守倉色 (5)	同料米舊節目冊	1卷	
	節目冊	1卷	
	日記冊	1卷	
	并養庫節目冊	1卷 鄉校上	
	醬塩太節目冊	1卷 守城廳上	1806년 鄭晚錫
山倉色 (6)	沈醬改色定式節目	1卷 僧將授 國淸寺上	1766년 姜必履
	僧將及山城四門直料布節目冊	1卷 官上	
	山城國淸寺屯番節目冊	1卷	1803년 鄭晚錫
	復設謄錄冊	1卷	
	守護節目冊	2卷 1卷 備局成貼在 1卷 巡營成貼在	
	城丁軍官都案冊	1卷	
	金井山城錢穀區別及掾弊節目冊	1卷	1825년 李沆

조선 후기 동래부의 『萊府重記』에 수록된 기록물 분석

部署(種數)	書名	卷數	府使 對照
官廳色 (2)	記付貿易及各人等無面都成冊	1卷	
	排朔冊	1卷	1758년 趙曦
貿易色 (3)	排朔冊	1卷	1758년 趙曦
	倭供雜物添價節目冊	1卷	
	紙地屯番節目冊	1卷	
雇馬色 (1)	屯番田案	4卷 內 2卷 紙筒庫在	
醫生 (2)	醫糧番節目冊	1卷	1806년 鄭晚錫
	醫生球弊節目冊	1卷	1840년 李明迪

戶房과 禮房의 기록물과 비교했을 때 종수와 수량은 많지 않으나 11개의 부서에서 25종의 기록물이 비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기록물이 가입된 시기를 대조해 본 결과 1758년부터 1840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兵房에는 나졸에게 급료로 주는 쌀에 대한 폐혜를 구제하기 위한 절목책 1권, 刑房에는 丁若鏞(1762-1836)이 저술한 형법서 『欽欽新書』 10권이 소장되어 있다. 또 조선시대에 중앙이나 지방의 각급 관청에서 재물을 절약하여 사용하기 위해 1년 예산을 12개월로 나누어 월별로 배정된 한도 내에서 쓰도록 적어 놓은 『排朔冊』이 있는데, 동래부에서는 ‘工房色’, ‘官廳色’, ‘貿易色’에서 1권씩 소장되어 있으며, 공방의 『배삭책』은 本庫에 소장되어 있다. 接賓色에서는 『接賓廳節目冊』이 1卷 있었으나 오래되어 지금은 없는 것으로 기입되어 있다.

이처럼 기록물의 서명을 통해서 각 부서별 업무를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소장처가 옮겨진 경우에는 수량 아래에 기입하고 있다.

한편 1868년에 편찬된 『東萊府事例』의 刑房條에서 서책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서책들과 『래부중기』에 기록되어 있는 책의 수량을 비교하여 중기의 기록대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표 14> 『東萊府事例』의 刑房條에 保管된 書冊 數量과 比較

『萊府重記』(1859년)			『東萊府事例』(1868년)		
部署	書名	卷數	部署	書名	卷數
			刑房	『經國大典』	5卷
				『大明律』	4卷
				『受教緝錄』	1卷
				『大典通編』	5卷
紙筒	『無冤錄』	1卷 刑所授		『無冤錄』	2卷
				『大典』	6卷
紙筒	『續大典』	1秩內 4卷 刑所授		『續大典』	4卷
紙筒	『大典續錄』	6卷		『大典續錄』	1卷
				『大典後續錄』	2卷
禮房 紙筒庫	『決訟類聚』	2卷內 1卷 己卯九月以前無面 在 1卷		『決訟類聚』	1卷
			『大典會通』	5卷	

『동래부사례』의 형방조에 기록된 서책은 총 11종이다. 이 서책에 대해 역으로 『래부중기』에서 찾아보면 예방의 지통고 서책질과 지통 부서에 비치되어 있었다. 『무원록』의 경우 중기가 작성되고 난 후 1권이 늘어났고, 『대전속록』은 중기에 작성된 수량보다 5권이나 차이가 나서 분실되거나 다른 부서로 옮겨 보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속대전』은 중기의 기록대로 수량이 같았으며, 『결송류취』는 예방의 지통고 서책질에 남아있던 1권이 1859년 이후에 형방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분석을 통해 중기와 사례가 9년이라는 작성 기간의 차이가 나지만 중기가 작성된 이후에도 서책의 철저한 관리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2 戶口帳籍

『래부중기』의 호적색은 동래부의 戶口帳籍 84종이 기록되어 있다. 호구장적은 조세와 역을 부과하고 수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3년마다 戶와 인구를 파악하여

조선 후기 동래부의 『萊府重記』에 수록된 기록물 분석

호적을 작성하였다. 이에 『래부중기』의 호적색에 기입되어 있는 해당 간지를 살펴서 1859년 당시 동래부의 호구장적 수량 및 변동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15> 重記內 戶口帳籍

	帳籍名	數量	作成年代		帳籍名	數量	作成年代
1	萬曆 丙午式 己酉式	合付 1卷	1606 1609	32	壬午式	2卷	1702
2	壬子式	1卷	1612	33	乙酉式	2卷	1705
3	乙卯式	1卷	1615	34	戊子式	3卷	1708
4	戊午式	1卷	1618	35	辛卯式	3卷	1711
5	天啓 辛酉式	失	1621	36	甲午式	3卷	1714
6	甲子式	1卷	1624	37	丁酉式	3卷	1717
7	丁卯式	失	1627	38	庚子式	3卷	1720
8	崇禎 庚午式	1卷	1630	39	雍正 癸卯式	3卷	1723
9	癸酉式	1卷	1633	40	丙午式	3卷	1726
10	丙子式	1卷	1636	41	乙酉式	3卷	1729
11	崇德 己卯式	1卷	1639	42	壬子式	3卷	1732
12	壬午式	1卷	1642	43	乙卯式	3卷	1735
13	順治 乙酉式	1卷 破破	1645	44	乾隆 戊午式	3卷	1738
14	戊子式	1卷	1648	45	辛酉式	3卷	1741
15	辛卯式	1卷	1651	46	甲子式	3卷	1744
16	甲午式	1卷	1654	47	丁卯式	3卷	1747
17	丁酉式	1卷	1657	48	庚午式	3卷	1750
18	庚子式	1卷	1660	49	癸酉式	3卷	1753
19	康熙 癸卯式	1卷	1663	50	丙子式	3卷	1756
20	丙午式	1卷	1666	51	己卯式	3卷	1759
21	乙酉式	1卷	1669	52	壬午式	3卷	1762
22	壬子式	1卷	1672	53	乙酉式	3卷	1765
23	乙卯式	2卷	1675	54	戊子式	3卷	1768
24	戊午式	2卷	1678	55	辛卯式	3卷	1771
25	辛酉式	1卷	1681	56	甲午式	3卷	1774
26	甲子式	2卷	1684	57	丁酉式	3卷	1777
27	丁卯式	2卷	1687	58	庚子式	3卷	1780
28	庚午式	2卷	1690	59	癸卯式	3卷	1783
29	癸酉式	2卷	1693	60	丙午式	3卷	1786
30	丙子式	2卷	1696	61	乙酉式	3卷	1789
31	乙卯式	2卷	1699	62	壬子式	3卷	1792

	帳籍名	數量	作成年代		帳籍名	數量	作成年代
63	乙卯式	6卷	1795	74	戊子式	4卷	1828
64	嘉慶 戊午式	6卷	1798	75	辛卯式	4卷	1831
65	辛酉式	6卷	1801	76	甲午式	4卷	1834
66	甲子式	6卷	1804	77	丁酉式	4卷	1837
67	丁卯式	6卷	1807	78	庚子式	4卷	1840
68	庚午式	6卷	1810	79	癸卯式	4卷	1843
69	癸酉式	6卷	1813	80	丙午式	4卷	1846
70	丙子式	6卷	1816	81	乙酉式	4卷	1849
71	己卯式	6卷	1819	82	咸豐 壬子式	4卷	1852
72	道光 壬午式	6卷	1822	83	乙卯式	4卷	1855
73	乙酉式	4卷	1825	84	戊午式	4卷	1858

중기가 작성된 1859년 당시에 총84종의 호구장적이 있었으며, 장적명의 간지를 통해 작성시기를 대조해보면 1606년부터 1858년까지 누락된 장적없이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859년 당시 동래부의 호적을 담당하는 부서인 호적색에는 1621년 辛酉式, 1627년 丁卯式, 1645년 乙酉式 호구장적을 제외한 81종의 호구장적이 보관되고 있었다.

『동래부지』(1740)의 기록된 ‘戶’에 의하면 東部 454戶, 西部 661戶, 東面 533戶, 西部[面] 333戶, 南村上端 550戶, 下端 448戶, 北面 452戶, 東平 209戶, 釜山 759戶, 沙川上端 278戶, 下端 786戶와 각 절의 僧 176戶로 총 5,641호였으며, ‘口’는 남자 9,616명 內 僧人 230명과 여자 11,625명으로 총 19,099명이 동래부에 살고 있었다.

한편 『東萊府事例』(1868)의 戶摠條에는 元戶 7,437호에 인구는 남자 14,956명, 여자 12,493명으로 총 27,449명인 것으로 보아 128년간 동래부의 호수는 1,796호, 인구수는 8,350명이 증가되었다.

4.3 紙筒

『래부중기』에서 수록된 ‘紙筒’은 문서와 관련된 부서⁵¹⁾이며, 처음 기입된 물품 사항으로 圖書櫃 2坐, 烙印櫃 1坐, 馬牌 5坐, 官廳庫開金 10箇 등 지통에서 관리

하고 있던 물품 24종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各庫封庫’라는 세부항목이 있는데, 1859년 당시 封庫⁵²⁾된 倉庫는 司倉各庫, 記付庫, 公木庫, 防役庫, 支持庫, 山城倉庫, 軍器各庫, 紙筒庫, 守城倉庫, 官廳庫, 公木各庫, 料米各庫, 釜大同各庫, 日供各庫이며 총 14곳이다.

처음 지통에 문서류가 加入된 시기는 1738년이며, 그 아래로 ‘戊寅年(1758) 趙等內加入’이라는 하부항목을 시작으로 ‘甲寅年(1854) 宋等內加入’까지 모두 19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기입하고 있다. 이에 등내별로 가입한 문서류들을 1738년부터 1854년까지 구분하고 가입된 시기를 통해 부사를 대조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6> 戊午(1738)年 加入된 文書

時期	書名	卷數	
1738년	狀啓謄錄冊	80卷	
	重記冊	124卷	
	三班下人等都案	98卷	
	稅麥稅銀置付冊	43卷	
	開市出入置付冊	各 43卷	
	奴婢斜只冊	40卷	
	各庫會內米木太雜物追捧次成冊	1卷	報巡營成貼來
	會外稅銀穀雜物蕩減冊	1卷	
	紙筒各樣文書置付目錄冊	1卷	
	會外稅銀穀雜物可捧草成冊	1卷	
	本府地圖	2件	
	邑誌冊	1卷	
	官奴金老未印信改造免役文書	封 1	
	金井山城論罷 巡營狀 啓謄書冊	1卷	都封
	辛酉式私奴婢文書	封 1	
稟記陸張題辭謄書	1卷		

51) ‘紙筒’이 관아 내의 각 庫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간주하여 하나의 ‘부서’라 표기하였다.

52) 조선시대에 관아에서는 연말에 업무를 마감하며 사헌부의 감찰을 불러 회계 감사를 받고 다음해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창고를 봉해 두었다.

時期	書名	卷數	
1738년	官奴時宗采宗臣女代口免役事立案	封 1	
	訓導傳掌文書	封 1	
	校院各廳定額成冊	1卷	
	并養庫節目冊	1卷	
	各廳壯士料布節目冊	1卷	
	時述齋會試節目冊	1卷 移送 鄉廳	
	接倭式例冊(1659)	1卷	
	商譯被執價銀都錄	1卷	
	查正文書	封 1	
	續大典	1秩內 4卷 刑所授	
	各邑軍丁捧招都	封 4	
	辛亥以後奴良妻所生立案斜只冊	3卷	
	大典續錄	6卷	刑所授
	無冤錄	1卷	
	良役實捻冊	3卷 兵房授	
	官婢愛連印信改造文書	封 1	
	官奴愛云軍器修補免役文書	封 1	
會餘耗穀區處節目冊	2卷內 2卷 官上, 1卷 鄉廳上		
守城廳利銀別備節目冊	2卷內 2卷 官上, 1卷 鄉廳上		

1738년에 처음 가입된 문서류로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간 관원이 왕에게 서면으로 올린 글을 그대로 기록해 만든 『狀啓謄錄冊』 80권이 있으며, 『重記冊』 124권, 『邑誌冊』⁵³⁾ 1권, 奴婢案이나 地圖, 節目, 訟事 관련문서 등 행정 및 사무처리를 위한 문서 35종이 있다.

다음으로 1758년부터 1854년까지 등내별로 가입된 문서류는 총 57종이며, 各庫에 封해져 있는 문서류는 37종이다.

53) 현전하는 『東萊府邑誌』 중에서 1759년본(韓國教會史研究所 所藏)이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책인데, 위의 기록을 통해 이보다 앞선 읍지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동래부의 『萊府重記』에 수록된 기록물 분석

<표 17> 等內別 紙筒에 加入한 文書

時期	府使 對照	書名	卷數 및 內容
1758년	趙暉	鷄稚廳節目冊	1卷
		紙筒節目冊	1卷
		各庫各面給賃銀錢蕩減成冊	1卷
		義旅案	2卷 內 1卷 鄉廳上 1卷 本庫在
		壯旅案	1卷 鄉廳上
1761년	洪名漢	開市改節目冊	1卷
		商譯蓼貨改節目冊	1卷
		正朝戶長路貫變通節目冊	1卷 鄉廳上
		每年習操時犒饋所 入釜鼎措備節目冊	2卷 內 1卷 鄉廳上 1卷 北面都洞上
		吏奴邑倉各色每年八月 輪回差役事節目冊	1卷 鄉廳上
1763년	鄭晚淳	官奴彩明戶長印信改造限己身免役	封 1
1764년	宋文載	查正家座冊	12卷
		同文書	封 1
		東下面金苧叱男次知番六斗落只 年長出給次文書	封 1
		妓生彩月改造印信立案冊	又封 1 1766년 姜必履
		官奴遇年改造印信免役	又封 1 1779년 李致中
		妓生金[鎔]改造印信免役	又封 1 1798년 鄭尙愚
		妓生桂香改造印信免役	又封 1 1829년 金鏞
		軍役查正文書	又封 3 1830/1836/1837년
1779년	李致中	奴婢斜只冊	1卷
1780년	尹師國	西面金正和田番訟事文書	封 1
		別騎衛都試長成冊	2卷 1785년 李頤祥
			又2卷 1786년 洪文泳
			又6卷 1790년 金履喜
			又2卷 1800년 金觀柱
			又2卷 1801년 徐有鍊
			又2卷 1802년 徐有鍊
又4卷 1816년 洪秀晚			

時期	府使 對照	書名	卷數 및 內容
1780년	尹師國	各樣軍丁捧招	封 1 1789년 金履喜
			又封 1 1795년 尹弼秉
			又封 1 1796년 尹長烈
			又封 1 1799년 金達淳
			又封 1 1800년 金觀柱
			又封 1 1801년 韓致應
			又封 1 1802년 徐有鍊
1789년	鄭尙愚	張完得防債文書	封 1
		東平田負郭養女息衿得文書	封 1
1799년	金達淳	南村李召史田畓防役廳贖公文書	封 1
1801년	韓致應	機張南斗態債錢決案及議送	封 1
1806년	鄭晚錫	紙所買畓文書	封 1
1819년	朴綺壽	各面牛稅畓成案節目冊	1卷 收租所上
		同畓券	1卷
		同畓文書記貳百柒張都	封 1
		丙子式各面中草男丁	24卷
1824년	李奎鉉	自乾隆癸巳正月至道光壬午十二月三十日釜倉料米太查出文書	封 1
		出城屯畓壹千陸拾伍斗落只文書壹百伍拾玖張都	封 1
		量費屯畓陸拾貳斗落只文書	封 3
		補役屯畓陸百捌拾玖斗伍刀落只文書壹百壹張都	封 1 入盛木橫壹坐
1838년	成遂默	羅卒房料米掾斨屯畓參百捌拾柒斗伍刀落只文書	封 1
1839년	李明迪	妓生水汲婢捧招	封 1
		羅卒掾斨屯畓文書	封 1
		鍊士武士掾斨屯畓文書	封 1
1842년	姜時永	牛稅畓舊量案	件 1
		同文書	封 1
1854년	宋廷和	分賑井間冊	3卷
		分賑文書	都 封 1

가입된 문서류들을 살펴보면 1758년에 가입된 『紙筒節目冊』 1권을 비롯하여 節目, 奴婢文書, 量案 등이 있다. 이중 1780년에 가입된 ‘別騎衛都試長成冊’은 동래부에 설치한 騎兵隊인 別騎衛에서 무사 선발을 위한 특별시험을 치른 기록이 담겨있는 책인데, 1785년에 처음 2권으로 구비되었고 이어 1786년 2권, 1790년 6권, 1800년 2권, 1801년 2권, 1802년 2권, 1816년에 4권까지 총 20권이 보관되어 있었다. 또 ‘各樣軍丁捧招’는 군역의 의무를 지는 壯丁, 즉 군인 중 지은 죄에 대해 자백을 받은 기록이며, 이 문서는 1789년부터 1806년까지 총 8권으로 작성되어 각 庫에 봉해져 있다. 끝으로 1854년의 宋廷和 부사에 의해 가입된 分賑文書까지 기입되어 있으며, 본문의 끝에는 ‘紙筒通引 孫在源’인 지통 담당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상 『래부중기』에 수록되어 있는 서책과 문서류는 총 236종으로 戶房, 禮房, 기타 兵房色을 비롯한 11개의 부서 및 戶籍色, 各庫의 紙筒에서 관리·보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동래부에서 작성된 『萊府重記』 筆寫本 2冊을 대상으로 서지적 검토와 중기의 구성 및 체제, 특히 중기 내에 수록된 기록물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으며,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래부중기』의 전체적인 기술체제는 부서명을 나타내는 ‘色’ 아래에 현재의 물품 수량과 加入·支出된 현황 등 회계 및 재고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하위항목으로 ‘秩’과 해당 연도에 부사가 加入하고 別備한 물품이 기술되어 있다. 중기에 기록된 부서는 총 28곳이며, 각 色의 내용이 끝나는 다음 행에 ‘第○張 ○行終’을 써서 정확한 장수와 행수를 기입하고 있다. 또한 1책과 2책의 각 권말에는 府使, 座首, 軍官의 手決과 다음 행에는 重記色의 수결을 포함해 부서별 色吏들의 성명과 수결이 나열되어 있다.

둘째, 중기에 기술된 물품의 수량에 관한 단위 표기법은 일반적으로 件, 坐, 間, 竹, 雙, 面, 箇 등을 사용하였으며, 서책은 卷, 冊, 秩, 件 등으로 또 書案이나 紙筒櫃는 坐 등으로 쓰였다. 또 가축이나 생선류 등은 首, 束, 尾, 貼, 申 등의 단위로 표기되어 있다. 물품 자체가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破無形, 破破無形, 暫破, 破破 등이며, 타인이나 기타 사유에 의해 물품이 파손된 경우 孫萬雄無面, 腐傷故乙酉報營燒火, 連院釧等無面 등 해당 이름과 사유를 기록하고 있다. 물품관리와 처리현황에 대한 표기법으로는 修補, 李等內新備, 鄉校紅門改建, 改備丙寅年鄭等內 등으로 나타나며, 각 부서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 중 소장처에 변동이 있으면 厲祭壇上, 禮房授, 鄉校上, 教鍊廳上 등으로 자세히 기입하고 있다.

셋째, 『래부중기』의 표지서명과 권수의 첫행에 ‘己未八月日’이 묵서되어 있는데, 중기의 작성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戶房色’의 하위항목 ‘都書員次知秩’에서 물품이 비치된 시기와 부사를 대조해 본 결과 1859년(己未)에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59년에 재임했던 동래부사는 『東萊府邑誌』(1899)의 『府先生』에 의거하여 鄭獻教임이 확인되었으며, 1859년 8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1860년 5월 承旨로 이적되었다. 『래부중기』가 1859년 8월에 작성되었으므로 정헌교가 동래부사로 부임하면서 新官과 舊官의 교체로 인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넷째, 중기에 수록된 내용 중 각 부서별로 보관된 서책과 戶口帳籍 및 紙筒庫로 나누어 기록물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戶房의 하위항목 ‘都書員次知秩’에서 토지대장과 측량에 관련된 문서류 21종이 확인되었다. 禮房의 ‘鄉校書冊秩’ 항목에서는 57종의 유교 경전류, 역사서, 教訓書, 文集類, 醫書 등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忠烈祠書冊秩’에서는 四書類 4종과 『伊洛淵源錄』, 『文章軌範』 및 『光國志慶錄』이 확인되었다. 또 예방의 紙筒庫에 보관되었던 서책은 14종으로 兵書類가 5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蘭雪集』 冊板 20立的 책판도 보관되어 있다. 기타 11개 부서에서는 1758년부터 1840년에 加入된 25종의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다. 다음으로 호구장적의 장적명 간지를 대조해 보면 1606년부터 1858년까지 3년마다 작성된 84종의 호구장적(3종은 破)이 호적색에 보관되어 있다. 한편 처음 紙筒에

문서류가 가입된 시기는 1738년으로 『狀啓謄錄冊』, 『重記冊』, 『邑誌冊』을 비롯하여 地圖, 節目, 訟事 문서 등 행정 및 사무처리를 위한 문서 35종이 있었으며, 이후로 19명의 동래부사에 의해 가입된 문서류가 총 57종이 있다. 대부분 節目, 奴婢文書, 量案 등이다.

이와 같이 19세기 중반인 1859년에 동래부에서 작성된 『래부중기』에 수록된 기록물을 통해 지방관아의 교육 및 통치 그리고 기록물의 관리와 보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중기 내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부서별로 구비된 236종의 서책과 문서 등 기록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동래부의 각 부서별 기록물의 현황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비롯해 향후 타 지역의 관아에서 작성된 중기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서 각 지방 간의 기록물 현황을 서로 비교·검토하여 종합해 본다면 지방관아의 물품관리와 전반적인 통치의 형태 등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東萊史料』 1, 2, 3. 서울: 驪江出版社, 1989.
- 정경주 역. 『(國譯)東萊日記』. 부산: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1995.
- 김성찬 외. 『東營重記』 上·下. 원주: 원주시, 2013.
- 동래향교지편찬위원회. 『東萊鄉校誌』. 부산: 동래향교지편찬위원회, 2010.
- 변주승. 여지도서45 『경상도』 4. 진주: 흐름, 2009.
- 부산광역시·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부산금석문』. 부산: 부산광역시·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2002.
-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의 역사와 문화재』. 부산: 부산광역시. 2001.
- 부산박물관. 『東萊府使 忠과 臣의 목민관』. 부산: 부산박물관. 2009.
- 부산직할시 동래구 문화공보실. 『東萊鄉土誌』. 부산: 부산직할시 동래구. 1993.
- 영남문화연구원. 『重記』 I.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9.

이원균. 『부산의 역사』 ; 선사시대에서 개항전까지. 서울: 늘함께, 2000.

정진환. 『東萊逸事』. 서울: 文旺文化社. 1982.

[논문]

김덕진. “『光州牧重記』 解題.” 『호남문화연구』 제21집(1992). 187-193.

김문경. “邑誌로 본 朝鮮後期 寺刹 製紙의 實狀.”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2.

김숙경. “朝鮮後期 東萊地域의 官營工事に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4.

김 혁. “古文書用語 풀이-重記.” 『고문서연구』 19(2001). 157-163.

남권희. “慶尙道 安陰縣의 『丁卯十一月日 各項都重記』 分析.” 『嶺南學』 제21호(2012). 203-255.

남권희. “重記資料 分析에 의한 朝鮮時代 地方 官衙의 記錄管理.” 『社會科學』 제14집(2002). 1-43.

남권희. “조선후기 전라도 임실현 <중기>에 수록된 기록자료 분석.” 『書誌學研究』 제57집(2014). 5-50.

박민정. “朝鮮後期 東萊府의 歷史地理 研究 ; 18·19세기 聚落體系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1995.

박원택. “朝鮮時代의 會計制度로서의 解由의 要件과 解由規則.” 『安東大學論文集』 第8輯(1986). 425-438.

박진철. “1693년 『重記』를 통해 본 全羅道 羅州 牧의 軍備 實態.” 『東國史學』 제46집(2009). 1-32.

시귀선. “古文獻에 보이는 ‘等內’의 用例에 대하여.” 『전주사학』 제4권(1996). 215-232.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50집(2011). 433-470.

조미은. “19세기 解由文書와 重記에 관한 사례연구.” 『고문서연구』 제40호(2012). 179-212.